

“예술인이 AI 연구·창작 주체로”...문화기술 미래 모색

문도협,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위한 포럼 성료
문화기술 생태계 조성 등 실행 촉구 공동 제안도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최근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문화예술생태계 확장을 위한 CT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확산에 따라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을 진단하고, 지난 2007년부터 논의돼 온 한국문화기술연구원 구성을 현재의 기술·문화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예술계와 연구자, 지역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AI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와 국가 차원의 문화기술 연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혜선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기억과 지식, 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국가 문화 AI 연구플랫폼’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2007년과 현재는 문화기술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만큼, 과거 계획의 복원이 아니라 20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생성형 AI와 문화데이터, 확장현실(XR), 디지털휴먼 등으로 문화기술의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 문화AI 연구, 문화데이터 인프라, 융합인재 양성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AI 시대 대한민국의 문화주권과 산업주권을 지키는 국가 인프라로 구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화를 위한 기술’을 넘어 ‘AI 이후 인간과 문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화예술인을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연구와 창작의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문화기술 전문가가 문화·예술·인문과 AI·공학기술을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최근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문화예술생태계 확장을 위한 CT 포럼’을 개최했다.

연결하고, 융합연구의 구조를 설계하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년 연구자와 예술가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전남광주에 ‘Culture AI Living Lab’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연구와 창작, 실증, 산업이 연결되는 문화기술 생태계를 지역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서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AI 시대 문화주권과 문화예술 생태

계를 위한 공동 제안문’을 채택.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공동 제안문에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국가예산 마련, AI·인문·예술·디자인·공학이 융합하는 개방형 국가연구기관 구축, 문화예술인과 청년 연구자·창작자의 연구개발 참여 기반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전남광주에 ‘Culture AI Living Lab’을 구축해 연구·창작·실증·산업화가 연계되는 문화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문화기술 연구와 창작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대한민국 문화와 예술을 AI 시대 국가 지식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방향과 문화기술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그동안 이어온 문화기술 논의를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확장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와 연구자,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구체적인 설립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승욱 광주기독병원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지역의료 발전·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 공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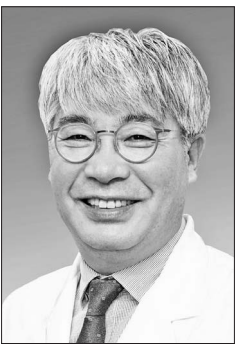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이승욱 병원장(사진)이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병원 및 헬스케어 박람회(KHF 2026)’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대한병원협회가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및 의료계 발전에 공헌한 회원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천

·선정한 것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욱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장으로 재임하며 진료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 환자 중심의 병원경영, 지역사회 공공의료 실천 등에 힘써왔다.

특히 지역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아울러 광주기독병원이 120년 넘게 이어온 의료선교와 지역사회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에 앞장섰다.

공헌활동을 펼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했다.

이승욱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서 지역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의료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의료라는 본질을 변함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유)팜스원, 지역사회에 건강식품 나눔 실현

구례군에 1100만원 상당 기탁

(유)팜스원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1100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유산균) 50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건강기능식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례군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등에 전달되어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팜스원은 지난해 1000만원 상당의 파스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11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을 후원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준호 팜스원 대표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건협 광주전남지부, 여름 건강관리 캠페인

나주시복지관 찾아 지역 어르신 건강 상태 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나주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무더위와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심전도 검사와 혈관노화도 측정 등을 진행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모바일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

리듬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혈관노화도 측정을 통해 혈관 건강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검사 후에는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 무리한 야외활동 자제 등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전달해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기온 변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나주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관계성 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광주 서부경찰은 치평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합동 순찰과 관계성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심동행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계성 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하고,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동행 프로젝트는 경찰·지역사회·주민이 함께 발맞춰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살펴보고,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홍보를 추진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이다.

서부경찰과 치평동자율방범대는 직접 상가와 주민들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홍보



물을 전달하고 위급 시 대처요령을 설명하며 현장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전병현 서부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와 적극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7월 12일)

쥐 48년생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
60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희망은 가까워진다
72년생 부탁한 일이 있었다면 기대하지 마라
84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96년생 약간의 어려움은 내일의 보약

토끼 51년생 주도면밀한 판단력이 절실하다
63년생 인덕 없으니 외로움 느끼는 날
75년생 노력 비해 감정의 이익이 생기는 운세
87년생 천재일우의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99년생 체계적이어야만 할 것

말 54년생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것
66년생 성급한 결정은 손해
78년생 험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90년생 만남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

돼지 57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일 것
69년생 상부상조해야 만이 실행할 수 있을 것
81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 마라
93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

소 49년생 한시를 꼭둑 될 것
61년생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73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85년생 옛 이성에 시선을 두어라
97년생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날

황소 52년생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
64년생 주위 사람들과 화합 잘될 것
76년생 노력하니 뜻밖의 귀인이 도움 줄것
88년생 결과 없는 행동들 헛수고

양 55년생 가까운 사람과 원수지는 일이 생길 것
67년생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79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
91년생 역욕이 강해 상대 부담스러워한다

개 58년생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때
70년생 뜻밖에 제안 받아들여도 좋을 것
82년생 쉽게 인연이 맺어지지를 앓다
94년생 성취되리니 용기를 가지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본래 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62년생 지금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74년생 직접 발로 뛰어야
86년생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98년생 계획 목적 달성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날

뱀 53년생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65년생 너무 자존심을 죽이지 말라
77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89년생 위험이 보인다

원숭이 56년생 이해하는 마음 갖자
68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80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닦힌다
92년생 사치와 허영심 버리자

돼지 59년생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71년생 일 이끌어 나가면 따르는 사람 많을 것
83년생 지인의 투자 유혹 등을 조심
95년생 그 길은 옳지 않으니 빨리 바뀌라